

보도 일시	2022. 6. 22.(수) 17:00 2022. 6. 23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2.(수) 17:00
담당 부서 <총괄>	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편도인
		담당자	사무관 홍유란 (044-202-7212)

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

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
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,
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
개선방안 등 심의·의결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6월 22일(수) 15:00,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.

-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,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.
- 심의회는 ‘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(안)’, ‘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(안)’, ‘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(안)’에 대해 논의하고, 심의·의결했다.

<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(안)>

□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*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,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·의결했다.

*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(6.8)에도 주요국 방역·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제한, 정상가동을 위한 인력·서비스 충원기간 소요 등

- 이에 따라, 항공여객운송업,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*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2년에 270일간 유급휴업·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
* 지원기간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(7개): 항공여객운송업, 여행업, 항공기취급업, 면세점, 공항버스, 외국인전용카지노, 항공기부품제조업

<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(안)>

- 2021년 첫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,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,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.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올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는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.
-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,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.
- 또한, 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유인체계(조기취업성공 수당 등) 개편과 함께 취업지원 단계별 상담사의 적극적 개입·지원을 강화하고, 전달체계의 역량을 높이는 등(취업알선전담팀 도입 등)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.

※ 상세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 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 예정(6월 이내)

<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(안)>

-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,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상황·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.
-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.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외부 고용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량적 고용성과(취업률, 고용유지율, 임금, 사업실집행률)와 정성적 성과, 현장 애로사항 개선 노력 모니터링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.
-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,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.
- 오늘 심의·의결된 내용은 차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.

※ 불임: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

담당 부서 <총괄>	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편도인
		담당자	사무관	홍유란 (044-202-7212)
<공동>	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지원 (044-202-7190)
		담당자	서기관	이재인 (044-202-7193)
<공동>	노동시장정책관 일자리정책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영진 (044-202-7227)
		담당자	서기관	박지혜 (044-202-7228)
<공동>	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회복지원반	책임자	과 장	박병기 (044-202-7292)
		담당자	사무관	배지연 (044-202-7229)



인사말

□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.

-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
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-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
고용정책심의회라 오늘 자리가 매우 뜻깊게 다가옵니다.

□ 오늘 논의할 안건은 총 네 건입니다.

- 심의안건은,
 - ①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(안),
 -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(안),
 - ③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(안) 등 세 건이며,
- 보고안건으로는 고용영향평가 과제 변경, 한 건입니다.

□ 우선, 최근 고용상황과

고용정책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
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최근 고용상황

-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,
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3만 5천명이 증가하여
최근 고용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

* '22년 월별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2.1)113.5 (2)103.7 (3)83.1 (4)86.5 **(5)93.5**

- 그러나,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들은
결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.

- 우선, 고용의 총량지표는 안정세이지만,
부문별 회복격차로 인해
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*과 항공업계** 등에서는
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,

* '22.5월 취업자수 추이('20.1=100, 계절조정): 도소매업 93.2 숙박음식 92.6

** 국내 항공 방역규제 해제(6.8)에도 주요국 방역·비자규제로 인한 운항제한,
정상 가동을 위한 인력·서비스 충원기간 소요 등

- 반도체, SW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과
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으로
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- 뿐만 아니라,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,
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,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,
중국의 봉쇄조치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 OECD는 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대비 0.3%p 하향 조정한 2.7%로 전망
('22.6.8. OECD 경제전망)

- 다른 한편으로는, ①디지털·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,
②노동공급 감소를 동반한 저출생·고령화의 가속화,
③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등
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
고용정책방향

- 노동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,
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
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- 이에, 고용노동부는 다음 몇 가지 과제들을
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.

- ① 첫째,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
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신기술분야 인력수급전망을 분야별·수준별로 고도화하고
민간(K-Digital Training 등)과 공공*(폴리텍 등)의
다양한 훈련주체들을 통해 디지털 인재 등 신산업 성장에
필수적인 인재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AI 관련, 저탄소 등 신산업분야 학과 신설, 하이테크 과정 확대 등

- 현장기술과 인력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
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·공급할 수 있도록
직업훈련 분야 규제혁신도 빠르고,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② 둘째,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로 향하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우선, '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'를 도입해 경력설계·
직업능력개발·일자리 알선 등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
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- AI를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확대하여
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, 업무도 효율화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실업 시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
있도록 고용안전망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,
적극적 구직노력 지원(Activation)도 강화하겠습니다.

③ 셋째,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산업·지역·기업에 걸쳐 각각의 특성에 맞는
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
원활한 산업전환 및 일자리 이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- 신산업, 산업전환업종*, 인력부족업종 등을 중심으로
각각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
산업 유형별 맞춤형 고용정책을 강화하고,

* 사전 진단 → 컨설팅 → 전환계획 수립 → 지원사업 연계 등 선제적·종합적 지원

- 자치단체가 지역 내 발생하는 산업전환에
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,
일자리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고
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을 개편하겠습니다.

- 업종·일자리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
'기업도약보장패키지'를 통해 다양한
기업지원정책*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.

*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, 노동전환지원금 등

④ 넷째, 급속한 저출생·고령화에 대응하여,
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
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청년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통해
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,
수시·경력직 채용 등 노동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
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
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충하고
경력단절여성 특화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고령자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위해
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,
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습니다.

⑤ 마지막으로,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
지원정책도 놓치지 않고,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.

- 업황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

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,
업황회복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
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통한 채용지원 등
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이러한, 정책적 노력과 함께

낡은 노동시장의 제도·관행·의식을 혁신해
노동의 가치와 경제의 역동적 성장이 함께 선순환하는
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
시작하겠습니다.

□ 우리 노동시장은

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,
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.

○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

항상 현장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에 귀기울이고,
노사 등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면
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

심의안건 설명

□ 그럼, 오늘 심의할 세 가지 안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첫 번째는 「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(안)」입니다.

○ 향후 5개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것으로,
이번 첫 기본계획에는 지원대상·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와
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였습니다.

- 부양가족수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,
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고

- 조기취업성공수당 개편, 취업알선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
참여자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으로는 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(안)」입니다.

○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
매년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보완·개선하고,
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과 연계하고 있습니다.

- 금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저성과 사업은
폐지·감액 등 효율화하고

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확대, 고용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
등에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

□ 마지막은 「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(안)」입니다.

- 항공 방역 규제 여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
항공여객운송업 및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
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.

□ 그럼 세 가지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
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